

Daily Auto Check

2021. 5. 6(Thu)



자동차/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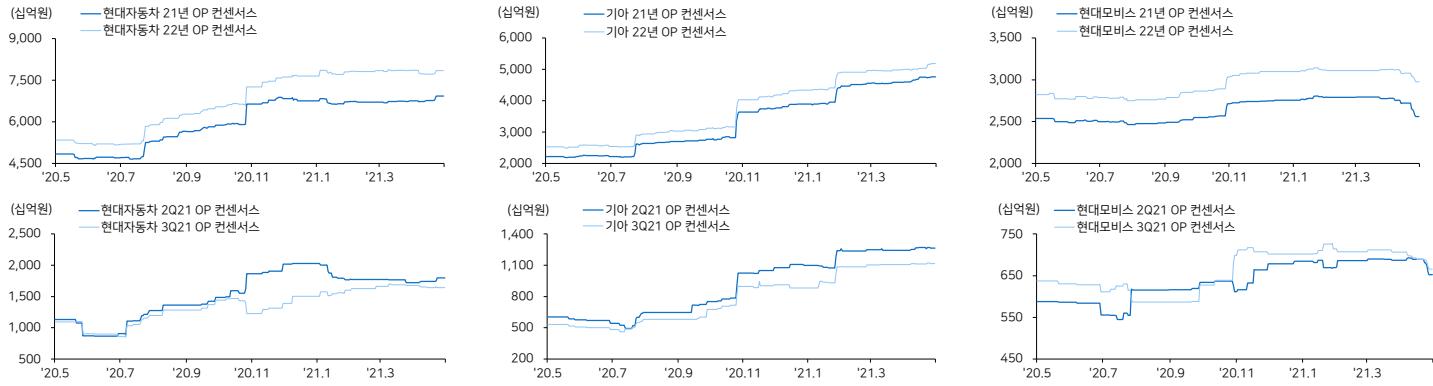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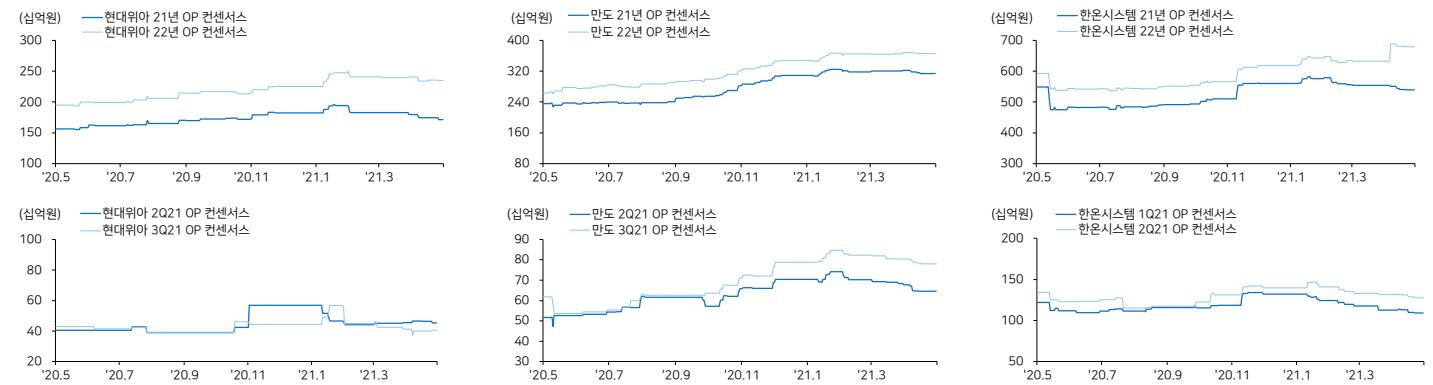
joonsung.kim@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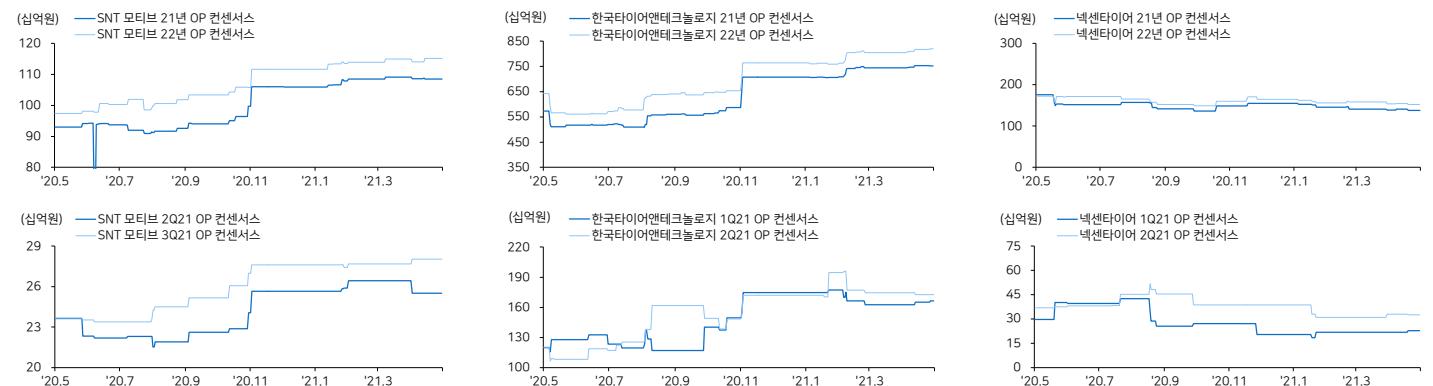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기아, 아이오닉5·EV6에 'SIC 전력모듈' 장착…주행거리 5% 향상 (THE GURU)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E-GMP 플랫폼 기반 전기차 '아이오닉5', 'EV6'에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스(Infineon Technologies)가 새롭게 출시한 전력 모듈이 장착됨. 높은 효율성을 바탕으로 이를 차량의 주행거리가 약 5%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https://bit.ly/3tnqDRA>

현대차 투자 어라이벌, 2023년 우버용 차량 생산 (연합뉴스)

어라이벌과 우버는 차량 공유에 사용될 '어라이벌 카'를 2023년 4분기부터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힘. 연간 5만km에 이르는 공유 차량의 주행 거리를 감당할 수 있으며 적당한 가격대로 제작할 것으로 예상됨.
<https://bit.ly/3gZnOy9>

자율주행차의 '눈' 인공지능 이미지 센서, 진짜 승부가 시작됐다 (조선일보)

현재 이미지 센서는 사람 눈 수준의 6억 화소를 목표로 열띤 개발 경쟁 중. 자율주행 기술에서 눈과 지능 중 눈을 담당하기 위한 이미지 센서는 자동차 내외부에 다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테슬라의 차량에는 14개의 이미지 센서가 설치됨.
<https://bit.ly/3th1Z5g>

포드 '2025년 자체 배터리 생산' (파이낸셜뉴스)

미국 포드자동차가 2025년까지는 자체 배터리를 생산하고, 이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3일 밝힘. 포드는 현재 한국 SK 이노베이션 등에서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으며, 계획 가능성이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장의 의견.
<https://bit.ly/3ujmTBB>

"현대차·기아 재도약 전략, 中정부 정책에 도움" 현지언론 '호평' (THE GURU)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 발표한 중국의 재도약 전략이 중국 정부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현지 언론의 평가가 나옴. 최근 '현대차·기아'의 중국 4대 핵심전략은 자동차 분야 혁신의 약점에 직접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함.
<https://bit.ly/3uptoCH>

현대차, 브미스 엔진 화재 가능성에 쌍티페 등 39만대 리콜 (연합뉴스)

현대차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엔진 화재 가능성 때문에 차량 39만대를 리콜함. 리콜 대상은 2013~2015년 쌍티페 20인3천대, 2019~2020년 엘란트라와 2019~2021년 코나·벨로스터 등 18만7천대임.
<https://bit.ly/3eU9tFH>

미국 'C-V2X' 단일 표준 채택...7월 2일부터 시행 (전자신문)

미국이 차세대 V2X 통신 기술 단일 표준으로 '이동통신기반 차량사물통신(C-V2X)'을 채택하면서, 중국에 이어 C-V2X를 단일 표준으로 채택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됨. 이는 한국과 EU 등 글로벌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됨.
<https://bit.ly/3em7lF>

이스라엘에 자율주행 R&D 기지...인텔, 반도체 6억달러 투자 계획 (디지털타임스)

인텔은 4억 달러를 투자해 예루살렘에 있는 모빌아이 본사를 자율주행차 연구를 위한 R&D 기지로 육성하고, 나머지 2억 달러는 북부 하이파에 'IDC12'로 불리는 R&D 센터 건립에 투입할 계획을 공개함.
<https://bit.ly/3uhdoTp>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